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5~3/3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2	우리말 금강반야바라밀경	편집부	법공양
3	정토삼부경(불교경전7)	한보광 역	민족사
4	밀린다왕문경	김현준	효림
5	미국 스님 한국 표류기	현안 스님	모과나무
6	마음 글밭	원영	불광출판사
7	Prayer-Letting Go(기도 내려놓기) VEN.POMNYUN SUNIM	정토	
8	우리 단청 화첩	선웅/김지민 외	담앤북스
9	살다 막힐 때 한줄 해결사	동은 스님	조계종출판사
10	관세음보살 기도법	하일 스님	솔과학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화경(상)	무비	불광출판사
2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토니 페르난도	월마
3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6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7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8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10	맛지마니까야(1)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대강백 통광 스님의 삶과 가르침



제월어록

우제선 편저

여래

2만원

'탄허 3걸'의 행장 · 법어 · 선시

후학들 선교겸수 정수 기록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대강백 제월 통광 스님의 삶과 가르침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통광 스님은 한암 중원, 탄허 택성 대종사로 전해진 강맥을 이어 각성·무비 스님과 함께 '탄허 3걸'로 칭송받은 우리나라 대표 강백이다.

최근 출간된 〈제월어록〉은 통광 스님의 조카인 우제선 동국대 교수가 스님의 행장과 법어, 선시를 바탕으로 선과 교를 두루 밝힌 스님의 삶과 사상을 재구성한 책이다. '제월(霽月)'은 통광 스님이 탄허 스님에게 받은 법호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 '행장'은 스님의 출생에서 입적까지의 생애와 수행 이력을 조망한다. 1940년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나 1959년 출가한 이후, 강원과 선방을 오가며 참선과 교학을 함께 닦은 수행 여정을 서술했다. 특히 폐허가 된 지리산 칠불사를 16년에 걸쳐 복원한 불사의 경과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2부 '법어'는 스님의 강설과 법문을 정리한 장이다. 스님의 법문은 선과 교의 구분을 넘나들며 수행의 본질을 직시한다. "어떻게 수행하여 깨달음을 구할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유효하다. 스님의 법어는 난해한 이론이 아니라, 수행 현장에서 길어 올린 체험의 언어이기에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법문을 '피안으로 이르는 길'과 '다시, 차안으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편집한 구성이다. 이는 깨달음과 실천이 둘이 아님을 보여 주는 동시에, 수행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중생 속으로 돌아와 교화에 나서는 보살행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읽힌다.



대장경 앞에 앉은 통광 스님. 사진 제공=여래

3부 '선시'에는 스님이 체득한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시와 전강 게송 등이 수록됐다.

책은 스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후학들이 생전 강의를 녹취해 글로 옮기고, 흩어져 있던 법문을 모아 교정하는 작업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

우제선 교수는 "스님의 학식은 그 범위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선지는 매우 예리해 삼라만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여 준다"며 "이 책을 통해 고통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만나 번뇌의 불꽃을 끄고, 지혜의 빛을 얻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월 통광 스님은?

1940년 하동에서 태어났다. 1959년 범어사에서 여환 스님을 은사로, 명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63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범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10 하안거를 성만했다. 1975년 동국대 역경연수원, 1987년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했다. 1978~95년 칠불사를 복원했다. 쌍계사 주지, 칠불사 회주 및 쌍계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했다. 2013년 법납 53년, 세수 74세로 원적에 들었다.

두려움의 실체를 묻다



빤냐이야기

한재우 지음

클레이하우스

1만8000원

원숭이 '빤냐' 구도 여정 담아

"나만의 고유한 자리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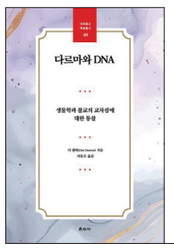
누적 청취 1700만 회를 기록한 팟캐스트 공부 멘토 한재우 작가가 이번에는 '내면의 성취'를 들고 독자들을 찾아왔다. 〈빤냐 이야기〉는 저자가 20년 넘게 이어 온 명상 수행의 결실을 '빤냐(반야)'라는 이름의 어린 원숭이를 주인공으로 한 우화에 담아낸 영적 성장 소설이다.

소설의 중심엔 불교 사상의 정수인 〈반야심경〉이 흐른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주인공 빤냐가 숲을 떠나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구도의 여정으로 치환해 보여 준다.

회색 숲의 빤냐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림자 목소리'에 시달린다. 미움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생존에 대한 공포는 현대인이 겪는 고통과 다르지 않다. 빤냐는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 믿고 수련에 매진하지만, 육체적 강인함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결국 그는 정해진 안식처를 떠나 자신만의 고유한 자리인 '마르가(길)'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그 길에서 빤냐가 만나는 인연과 사건들을 통해 두려움의 실체가 결국 스스로 만든 환상임을 일깨운다.

미산 스님(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은 "명상을 시작했음에도 두려움과 같은 망상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 줄 책"이라고 추천사를 남겼다. 저자는 "마르가, 즉 '이번 삶에서 도달해야 할 나만의 고유한 자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삶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진화유전학으로 본 불교 사상



다르마와 DNA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

운주사

2만4000원

과학의 언어로 종교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학계 안팎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명상과 뇌과학의 만남, 종교윤리와 진화생물학의 접목 등이 그것이다.

〈다르마와 DNA〉는 진화유전학을 전공한 저자가 불교 사상과 최신 생물학 연구를 교차시키며 주목할 만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책의 출발점은 한 과학자의 내적 전환이다. DNA 돌연변이 연구로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2004년 달라이 라마의 "진실은 직접 확인한 뒤에 믿어야 한다"는 법문을 듣고 기존의 인식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과학과 불교, 삶의 관계를 다시 묻기 시작하는 그는 티베트, 스리랑카, 인도 보드가야 등지를 오가며 다양한 불교 전통을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과 불교가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한다.

생명과학 · 불교철학 접점 모색

과학 윤리로 '보리-과학' 제안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명과학과 불교철학의 접점을 치밀하게 탐색한다. 특히 DNA의 구조와 변이, 생명체의 연속성과 상호연결성을 분석하면서,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상·연기·무아가 형이상학적 명제가 아니라 생명 현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예컨대 DNA의 끊임없는 변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상의 원리를 떠올리게 하며, 생명체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연기의 세계관과 깊이 맞닿아 있다. 이러한 비교는 불교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넘어, 두 사유 체계가 공유하는 인식 구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저자가 자신의 연구 사례를 통해 생명 현상의 비고정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예쁜꼬마선충의 높은 돌연변이율을 밝혀낸 연구는 생명이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 이는 '자아'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불교의 무아 사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저자는 기존 과학이 전제해 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 모델을 비판하며, 과학 역시 인간의 활동인 이상 그 동기와 윤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자비·자각·무착·무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학적 태도, 즉 '보리-과학(Bodhi-Science)'이다.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과학자들이 내리는 결정과 우리가 수행하는 과학을 안내하는 윤리적 토대로 제안한다"며 "'보리-과학' 전략은 과학이 사이비 과학으로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비록 '보리-과학'이 완성된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 제시에 가깝지만, 그 문제의식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울림을 남긴다.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동기를 점검하고, 개인적 욕망이 아닌 고통 감소와 존재 이해의 확장을 위한 과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윤리적 선언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수령 기자

2026년 새로 나온 불광출판사의 어린이 책!



괜찮아 괜찮아

이토 히로시 글·그림 | 심수정 옮김

40쪽 | 값 16,800원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법 주문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 이야기

하이메 감보아 골덴베르 글 | 웬 슈 첸 그림 | 김난령 옮김

40쪽 | 값 16,800원

눈이 아닌 손끝으로 읽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난 유령이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해."

나는 바위야

로럴 크로자 글 | 맷 제임스 그림 | 김난령 옮김

52쪽 | 값 16,800원

작은 존재들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키는 단단한 외침!

우린 언제나 함께!

존 에이지 글·그림 | 권이진 옮김

48쪽 | 값 16,800원

조지와 레니의
건강한 우정 만들기

둘이어도 혼자여도, 언제나 함께!
친구란 그런 것

그날 (근간)

마이클 로젠 글 | 벤자민 필립스 그림 | 류수빈 옮김

40쪽 | 값 16,800원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하루를 견뎌내고, 또 하루.
하루하루, 그리고 또 하루.

불광 어린이 인스타그램@bkbooks_child · 02-420-3200 · kimdh2321@naver.com

불광어린이